

코스피 랠리… 5대 증권사, 3분기 영업이익 24% ↑ ‘신바람’

미래에셋·삼성·키움 등 증권사 5곳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 1.9조

한국투자, 영업이익 4946억 36% ↑
키움, 영업이익·순이익 20%대 상승
예탁금 80조 넘겨 4분기 전망 ‘굿’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갔다. 코스피 상승과 투자자에 탁금 증가 등 자본시장 환경 개선으로 인한 업황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권주에 대한 리레이팅(재평가)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5곳(미래에셋·삼성·키움·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 885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한 수준이다. 당기순이익도 1조 4333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은 올해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상승세에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증권사’ 관련 이미지.

상반기에 이미 ‘1조클럽’을 달성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두드러진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둔 한국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946억원으로 5000억원에 근접하다. 순이익도 3948억원으로 유일하게 3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1%, 25.5%씩 증가했다.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NH투자증권이다. 같은 기간 NH투자증권은 영업이익 2960억원, 순이익 223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57.3%, 45. % 성장한 것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 외에도 키움증권이 영업이익 3477억원, 순이익 2663억원으로 전년보다 29.7%, 25.8%씩 늘어났고, 미래에셋증권도 영업이익 4102억원, 순이익 2983억원을 기록하면서 10.6%, 2.8% 성장했다.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3367억원, 순이익 2500억원으로 3.9% 4.0%씩 오르면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다.

앞서 3분기 초에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으로 국내 증시가 제자리걸음을 보였지만, 8월 말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코스피는 연일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 지난 3분기에만 코스피는 11.5% 상승했다. 투자자예탁금도 지난 6월 말 68조 9724억원에서 9월 말 76조 4474억원으로 10.8% 급증하며 증권사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증시의 질적 개선은 증권사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등 추가 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이익 확대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은 증권사 5곳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 연구원은 “증권사들은 우호적인 증시 환경을 기반으로 브로커리지와 기업금융(IB) 수익의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에도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예탁금도 최초로 80조원을 넘기면서 5대 증권사의 4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른 ‘빅5’ 증권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총합은 7조 2146억원으로 29% 성장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금융지주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9366억원으로 제시되면서 ‘2조클럽’ 진입 가능성도 엿보인다.

증권사들의 눈높이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달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 5곳이 모두 목표주가를 올려잡았다. 더불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역시 이달 1곳 이상이 목표주가 상향을 제시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금 증권주는 멀티플 디레이팅 요인은 완화되고, 우호적 업황은 지속되는 동시에 구조적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는 구간”이라며 “직전 수 년간 추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낮은 밸류에이션에 고착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인 변화는 중장기 점진적으로 증권주 멀티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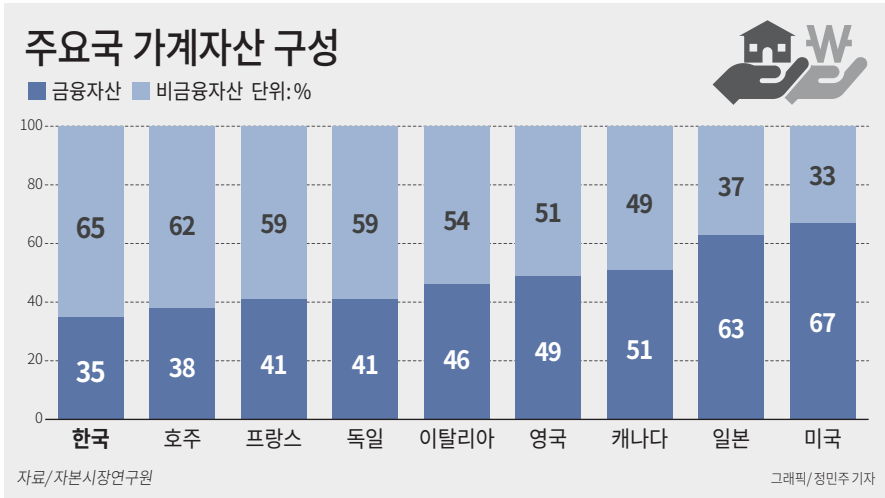
“가계자산 자본시장 유도 인센티브 절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 중심 자산, 경제성장 막아
연금적립 등 세제혜택 강화 해야”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가 경제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있어,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은 가계 잉여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공급되는 것을 제약해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린다”며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 확대는 혁신기업 중심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가계는 부동산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 비중이 낮아 유동성이 부족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가계부



채가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가계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주식·채권·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으로 구성돼, 가계 저축이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가계의 자산 형성 방식이 자발적으로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특히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가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무가입 연금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50.7%보다 낮다”며 “미국의 401(k)는 연간 납입 한도가 7만 달러(약 9900만원)에 달할 만큼 세제 혜택 규모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시장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채권전문가 85% “기준금리 동결 전망”

금투협, 채권 종사자 100명 조사
종합 채권시장심리지수 12.4p 상승

국내 채권 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오르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채권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여전한 모습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5년 11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10월 13~16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한은이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조사는 펀드매니저, 트레이더, 브로커 등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달 종합 채권시장심리지수(BMSI)는 111.5로 전월(99.1) 대비 12.4포인트 상승했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금리 하락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BM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시장 심리가 양호함을, 미만이면 위축된 상태를 의미한다.

금리전망 BMSI는 151.0으로 전월(115.0)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하락 응답자는 55%(전월 34%)로 21%포인트 늘었고, 금리 상승 응답은 4%(전월 19%)로 15%포인트 줄었다. 미·중 갈등 심화와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금리 하락 기대감이 확산된 결과다.

물가 BMSI는 85.0으로 전월(70.0)보다 15포인트 상승하며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2%가 물가 상승을, 7%가 하락을 전망했다. 수입물가와 유가 상승에도 내수 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환율 BMSI는 54.0으로 전월(91.0) 대비 37포인트 급락했다. 응답자의 49%가 환율 상승을, 3%만이 하락을 예상했다. /허정윤 기자

‘신한 프리미어’ 고객자산 200조 돌파

신한투자, 자산관리 시장 입지 확대

신한투자증권이 ‘신한 프리미어(Premier)’를 통해 자산관리 시장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 Premier’ 산하 채널을 거래하는 고객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 Premier’ 산하 채널에는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인 PWM, 패밀리오피스, PIB를 비롯해 증권 영업점, 디지털 플랫폼 ‘신한 SOL 증권’이 포함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은행과 함께 ‘신한 Premier’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뿐 아니라 체계적인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객 한 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컨설팅, 브랜드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자산관리 가이드북 ‘혜안(慧眼)’ 등은 초고액자산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누구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

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신한 Premier 세미나’는 시황 전망, 섹터별 분석, 투자전략 등 고객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도곡·압구정·여의도·반포·청담·광화문 등 6곳에 마련된 ‘신한 Premier Hall’을 통해 우수 고객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세미나와 문화 체험(꽃꽂이, 다도, 드로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 및 가족 행사, 미팅 등을 위한 공간 대관도 지원하고 있다.

정용욱 신한 Premier를 총괄하는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앞으로도 신한 Premier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미래운용 ‘K-전력기기’ 투자 ETF 출시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ETF’를 상장한다고 21일 밝혔다.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ETF’는 글로벌 탐티어로 부상한 K-전력기기 대표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KEDI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지수(Price Return)’로, 전력기기 BIG 3인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으로 포트폴

리오를 구성한다.

전력기기란 전기를 생산·전송·분배하는 데 필수적인 기기(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등)와 시스템을 개발 및 생산, 공급하는 산업이다. 고효율, 친환경,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술 표준화 및 국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ETF’는 글로벌 기업들을 추월하기 시작한 코리아 전력기기 기업들에 효과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허정윤 기자